10.15686/fkl.2025..64.486 OPEN ACCESS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체현과 그 의미

나경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목차

1 서론
1.1 문제의식 및 선행연구 검토
1.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2 감정을 통한 현실 인식과 사랑의 (불)가능성
2.1 죽은 감정의 사회와 박제된 사랑
2.2 결혼의 약속: 안전과 행복의 프로파간다
3 사랑의 이상을 체현하는 취약한 주체
3.1 연민의 한계와 연애의 빈자리
3.2 자기동일성의 포기를 수행하는 사랑의 힘
4 삶을 구축하는 사랑의 잔해들
4.1 죄의 지배력과 몸을 탈취하는 사랑
4.2 사랑이 구축한 윤리
5 결론

1 서론

본 논문은 데뷔작 「계산」(1955)에서부터 『토지』(1969~1994)에 이르는 박경리의 소설을 다루며, 남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랑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모색한 박경리의 문학적 여정이 어떠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박경리 소설에 대한 기왕의 연구사에서는 초기의 사소설적이고 주관주의적 성격을 극복하고 점차 객관 세계에 대한 역사적·총체적 시선을 확보하여 『토지』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는 표준적인 평가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주로 재현론적 관점과, 주관과 객관을 이분법적 우열의 관계로 파악하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재현(representation)이 아닌 체현(embodiment)의 관점에서 박경리 소설의 '사랑'을 읽고자 하였다. 이는 그의 수필과 소설을 면밀히 살필 때, 그에게 사랑이라는 주제는 주관과 객관, 감정과 이성, 영혼과 육체, 낭만과 현실과 같은 쌍들을 우열과 대립 관계로 보는 관점에서 해석되지 않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체현의 관점은, 사랑의 출발점을 영혼·낭만의 영역으로 삼으면서도 '몸'의 역사적이고 물질적인 현실을 철저하게 고수했던 박경리식 사랑 서사의 특징을 적절히 다루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은 박경리 소설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한 원형으로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박경리 소설에서 사랑에 중점을 둔 선행 연구를 검토할 때 크게 세 가지 양상이 포착된다. 첫째,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연구들을 볼 때 박경리 소설에서의 사랑이 남성 중심의 질서에 순응한다는 입장과 저항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둘째, 사랑의 낭만성에 주목한 연구들이 두드러진다. 셋째, 인물들의 주체성에 주목하여 사랑의 긍정적인 가치를 밝히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사랑에 관한 박경리 특유의 사유가 그의 소설 전반을 관류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낭만'이란 박경리뿐 아니라 당대 여성 작가의 소설에 등장하는 사랑을 수식하는 지배적인 용어이지만, 실상 '낭만'이라는 말 자체는 박경리가 생각한 이상적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구명할 수 없는 텅 빈 기표이다. 때문에 본 논문은 '낭만'이라는 용어를 사랑을 명명 내지 유형화하는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박경리에게 그 낭만(이상)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자 하였다.

또한 박경리가 사랑을 '자유'와의 길항 혹은 모순 구도 속에서 파악하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주체성에만 주목할 때 오히려 박경리가 말하고자 하는 사랑의 핵심을 간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근대 초기부터 한국 문단에서 사랑이라는 소재가 근대적 주체인 '자유주의적 개인'의 등장/확립으로 의미화되곤 했던 경향과 달리, 박경리에게 사랑이란 '자유로운 주체'라는 개념과 끝없이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박경리 소설에서 사랑은 주체의 자기동일성을 위협하는 힘으로 일관되게 그려지고 있다.

본 논문의 기본적인 입장은, 사랑이라는 형이상학적 소재에 대한 박경리의 이상(낭만)이 소설 인물들의 육체를 통하여 체현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경리 소설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사랑의 규제적 이상은 인물 분석을 통하여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체현은 결코 영→육의 일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1] 첫째로 사랑의 체현은 역사적이고 우연적인 현실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둘째로 사랑의 체현은 취약하고 불완전한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영혼과 육체의 신비한 긴장과 균형, 갈등과 조화는 박경리식 사랑 서사의 핵심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사랑의 규제적 이상을 분석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도구로 알랭 바디우의 순수 논리적, 형이상학적 사랑 이론[2]을, 몸을 중심으로 하여 사랑에 관한 주관적·현상적 체험을 논하기 위한 도구로 헤르만 슈미츠의 『사랑의 현상학』(1993)[3]을 균형 있게 다루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2장과 3장을 통해 사랑의 체현에 관한 일견 모순적인 양 측면을 다룬 후, 4장에서 이 의미를 종합적으로 해명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2장에서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사랑이 체현되는 조건이자 무대라고 할 수 있는 '현실'과 '몸'이다. 반면 3장에서는 현실의 중력을 거스르려 하는 사랑의 '이상(낭만)'이 부각된다.

---

1 이러한 체현에 관하여서 본 논문은 주디스 버틀러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Butler, Judith.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New York: Routeledge. 1993.)

2 알랭 바디우, 이종영 옮김, 『조건들』, 새물결, 2006.; 알랭 바디우, (대담: 니콜라 트뤼옹), 조재룡 옮김, 『사랑 예찬』, 도서출판 길, 2023.

3 헤르만 슈미츠, 하선규 옮김, 『사랑의 현상학』, 그린비, 2022.

2 감정을 통한 현실 인식과 사랑의 (불)가능성

2.1 죽은 감정의 사회와 박제된 사랑

2장 1절에서는 박경리의 데뷔작 「계산」(1955)[4]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분석하며, 그의 소설 세계에 등장하는 자전적 인물의 원형으로서 주인공 회인의 형상화와 문제의식에 집중한다.

회인은 '연애' 문제를 중심으로 자신의 감정적인 판단을 옹호하며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저항적 의지를 드러내는 인물이다. 그런데 작품에서 감정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회인은 사실상 냉철한 이성적 주체이자 의지적 주체로 그려지고 있다. 회인의 기본적 상태는 객관적, 이성적, 냉소적 상태로, 이는 박경리 초기 소설의 인물들이 주관에 매몰되었다는 주장과는 전면적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감정 자체의 역량을 조명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제어하고 이성적 태도를 항시 고수하려는 회인이 통제력을 잃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두 장면이 더 적절하다. 회인이 타인의 친절에 불편감을 느끼는 첫 번째 장면은 감정이 판단과 무관하지 않으며 그것이 언어로 설명이 되지 않을 때조차 신뢰할 만한 것임을 보여준다. 회인과 「벽지」(1958)의 혜인은 작가가 1950년대의 한국 사회에서 '감정의 기계화'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인물들이다. 이때 회인이 타인의 친절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친절함의 작동 기제 가운데서 '감정의 기계화'를 조장하는 힘을 감지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회인의 반응이 이성의 차원(분석적 판단력)이 아니라 감정적 차원(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힘)에 기인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감정을 통해 자기 외부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객관 세계를 판단하는 회인의 모습은 감정은 주관적이고 이성은 객관적이라는 이분법이 이성의 독선에 불과하다는 것을 폭로한다.

두 번째 장면, 즉 회인이 정아와의 대화 중 이성적 태도를 잃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장면은 관계에 관한 측면에서 이성의 독선을 폭로한다. 격정에 휩싸인 회인의 신체적 동요가 정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두 사람이 조화롭게 형성한 감정적 분위기는 서로를 주목하게 하고 두 사람의 관계 맺음이 더 깊은

4 박경리, 「계산」, 『현대문학』 제8호, 1955.8. 이하 인용 시 (계산, 면수)로 표기.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감정에 사로잡힌 회인의 수동성은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젖힌다. 오히려 회인의 능동성을 보여주었던, 감정을 제어하고자 하는 이성적인 저항의 태도는 여기서 고독의 슬픔을 지닌 "그지없이 측은"한 "패잔자(敗殘者)"의 모습으로 정아의 눈에 비친다(계산, 118). 이 때문에 박경리에게 감정이 참된 객관성의 문이며, 주관적인 감정이나 내면을 배제한 객관성은 "황당무계"하며 "공상의 무한한 자유의 비상"인 것이다.[5]

2.2 결혼의 약속: 안전과 행복의 프로파간다

2장 2절에서는 죽은 감정의 사회가 결혼이라는 개인에 가장 밀착한 제도를 사랑을 위협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양상을 살펴본다. 「회오의 바다」(1963)와 『표류도』(1959)는 모두 여성 주인공이 결혼을 선택하며 작품이 종결되는데, 이때 결혼은 대상의 선택, 혹은 의지의 선택보다는 '섬'의 선택으로 의미화한다. 두 작품은 결혼을 택하는 여성 주인공의 내면을 너무도 암울하고 착잡하게 그리고 있다. 공통적으로 '섬'이라는 표상은 결혼을 안전지대로 수용하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결혼을 유동하는 불안 지대로 선택하는 것은 당대의 결혼에 대한 통념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이 인물들은 결혼을 내세워 '안전한 사랑'을 프로파간다화(化) 하는 사회의 거대한 흐름에 맞서고 있다.[6]

그런데 결혼이 프로파간다의 무기로 휘두르는 것은 안전뿐만이 아니다. 결혼은 행복을 사랑의 목적으로 치환하여, 결혼 자신을 행복의 보증으로 제시한다. 결혼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사라 아메드는 결혼이 행복 출발점인 우발적인 마주침들을 통제하고 결혼 자체가 "행복 지시자"가 되어, 행복을 끝없이 미래로 유보시킨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행복은 나중에 올 무엇"이라는, 대상의 뒤에 따라온다는 미래적인 시간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7] 박경리 소설에서 이

5 박경리, 「자기의 목소리」, 『Q씨에게』, 현암사, 1966, 208쪽.

6 바디우는 "위험 없는 사랑"이라는 프로파간다가 '안전한 사랑'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면서 "사랑으로 촘촘히 짜여진, 타자에게서 비롯되는 시련이나 심오하고 진실된 온갖 경험을 완전히 회피하려 한다"고 말한다. (바디우, 『사랑 예찬』, 16-19쪽.)

7 사라 아메드, 성정혜·이경란 옮김, 『행복의 약속』, 후마니타스, 2021, 48-55쪽.

점은 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박경리의 사랑 서사에서는 반복해서 현재적으로 충만한 행복('현재의 행복')과 미래에 약속된, 정향을 수반하는 행복('미래의 행복')의 갈등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미래의 행복'은 '현재의 행복'을 압도하며 이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린다. 『표류도』와 『애가』(1958), 『그 형제의 연인들』(1962~63)을 통해 박경리는 반복적으로 사랑의 행복이 현재로 스며들지 못하고 끊임없이 '미래의 행복'으로 인해 유보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 사랑의 이상을 체현하는 취약한 주체

3.1 연민의 한계와 연애[8]의 빈자리

3장에서는 박경리 소설 세계 속 사랑의 규제적 이상이 반복과 비약을 거쳐 자신의 윤곽을 드러내는 양상을 본격적으로 살핀다. 먼저 3장 1절에서는 박경리가 연애와 연민의 차이를 그리는 방식과,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를 밝히고자 한다. 반복되는 연민과의 비교 구도를 통해 박경리가 생각한 연애의 위상과, 그 윤곽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연민과 연애의 질적인 차이에 관해 다루자면, 우선 박경리 소설에서 연민은 주로 인류애적인, 포괄적 사랑으로 묘사된다. 흥미로운 점은 『애가』의 문정규와 『내 마음의 호수』(1960)의 송병림이 보이는 상반된 흐름이다. 문정규는 연애의 실패로 인해 인류애적 연민으로 나아가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영웅적 연민'을 설교하는 박애주의자 송병림은 연애로 투신하며 방향을 전환한다. 두 인물을 통해 연민과 연애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첫째로 연민의 대상은 무한정으로 확장될 수 있는 반면 연애는 한 대상에 집중한다. 둘째로 연민은 자기를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도리어 자기에 철저한 채로도 충만할 수 있지만, 연애는 계속해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경험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둘의 질적인 차이가 강조되면서, 박경리는 연애는 연민으로 대체되거나 보충되는 것이 아님을, 이를 무시한 연

8 박경리 소설에서 연민과 연애는 모두 사랑의 종류이므로, 이 절에서는 둘을 구분하기 위해 남녀 간의 사랑을 '연애'로 지칭한다.

민이 얼마나 공허할 수 있는가를 날카롭게 꼬집고 있다.

두 작품과 대략 15년의 시차를 가지고 있는 『단층』(1974)의 한윤희와 윤수용의 서사는 또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단층』에서는 정근태와 명자의 관계를 통해 연애와의 결합으로 나아간 연민이, 연애가 공백으로 남을 때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타나 눈길을 끈다. 이러한 논의들은 박경리 소설에서 사랑이란 자기를 내어주는 것, 자기를 흔들고 허무는 것으로서 반복적으로 체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2 자기동일성의 포기를 수행하는 사랑의 힘

3장 2절에서는 『시장과 전장』(1964)을 분석하며, 이가화라는 인물을 통해 박경리가 생각한 사랑의 이상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체현되고 있음을 논할 것이다.

『시장과 전장』은 현실적인 자전적 서사와, 다소 관념적인 사회적 서사를 교직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두 서사가 섞이게끔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남지영과 이가화는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9] 먼저 지영이라는 인물은 주체적이면서도 복잡한 내면을 지닌 인물이 전쟁이라는 압도적인 상황 앞에서 가족의 생존이라는 하나의 문제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 지영은 「계산」의 회인을 비롯하여 박경리 소설의 원형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결벽증적 여성 인물'의 계보를 잇고 있다. 사랑의 이상을 '나를 내어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세계의 허위와 폭력에 대한 저항적이고 자기 보전적인 태도가 사랑의 이상과 배치된다는 것이 박경리의 자전적 주인공들이 피하지 못하는 비애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가화는 자의식과 고뇌로 가득 찬 지영과 달리 자의식이 아예 소거된 듯

9 이해를 돕기 위해 범박하게나마 지영과 가화의 대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남지영	이가화
원심적 인물	구심적 인물
결벽증적 성격	무방비적 성격
자의식 충만	자의식 소거
현실적 서사로 수렴	낭만적 서사로 수렴

한 텅 빈 모습으로 등장한다. 지영과 기훈을 통해 『시장과 전장』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과 낭만을 외면하는 것 모두를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가화는 유일하게 '낭만적 현실'이라는 모순을 살아낸다. 가화는 사랑의 상실에 비워지고, 사랑의 등장에 채워지는 인물로서, 지영과 똑같이 폭력의 피해자면서도 결벽증과는 정반대에 있는 무방비적인 인물이다. 박경리 소설에서 사랑의 규제적 이상으로 여겨지는 '자기 포기'적인 모습은 가화에게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체현된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사랑은 존재의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일을 개의치 않도록 하며, 자기동일성을 해체하고 상대와 관계 맺는 일을 기뻐하게 한다.

그러나 박경리는 이 인물을 주조하기 위해 자신의 주관이 반영된 인물인 지영과 철저히 분리해야만 했으며, 가화의 자의식을 아예 소거하다시피 할 만큼 낭만에 기대야만 했다. 박경리는 가화를 자신이 처음 만난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여겼음에도, 『시장과 전장』 이후 계속해서 사랑에 실패하는 인물들을 그린다. 그에게는 현실의 '피안'에서 사랑의 이상을 해방하는 것보다 현실 '속'에서 사랑을 체현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4 삶을 구축하는 사랑의 잔해들

4.1 죄의 지배력과 몸을 탈취하는 사랑

4장 1절에서는 2장과 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박경리식 사랑 서사의 중요한 특징들을 추리고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박경리의 사랑 서사에서 객관적인 태도, 관찰자적 태도는 미덕이 아니며 오히려 사랑의 방해물이 된다. 둘째, 사랑에 있어 영혼 내지 정신적인 측면이 강조된다.[10] 셋째, 사랑의 궁극적인 적이 자기 자신, 즉 '나'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절에서는 『녹지대』(1964~65)와 『죄인들의 숙제』(1969~70)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두 작품은 박경리식 사랑 서사의 특징들을 이어가면서

10 그러나 이는 계몽주의적 관점에서 영혼과 육체의 위계를 설정하며, 성적인 욕구나 사랑의 열정을 순정한 이성의 방해물로 여기게 되었던 이광수의 경우와는 차이를 보인다. (서영채, 『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53-58, 80-97쪽을 참고.)

도,『시장과 전장』 이후에 현실적 문제와 낭만적 사랑을 단절적으로 그리지 않고 마치 씨실과 날실이 어우러지듯 교직하고자 한 작가의 노력이 돋보이는 소설들이다.

두 작품은 모두 죄가 가진 강력한 지배력의 근원을 '자기중심성'에서 발견한다. 이때 처음 외부에서 인식된 사랑의 불가능성은 이제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발견된다. 외부의 죄가 내부의 죄(자기 중심성)를 강화시키고, 내부의 죄(자기 중심성)가 외부의 죄로 터져 나오는, 마치 뫼비우스의 띠 같은 죄의 지배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때 박경리 소설에서 사랑은 이러한 죄의 지배력 가운데서 마치 폭력처럼 몸에 대한 '나'의 주권을 탈취하는 경험으로 나타난다.

『녹지대』와 『죄인들의 숙제』는 시간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의 두 가지 중대한 전환을 보여주는데, 이는 『토지』에서 방대한 시간 가운데 사랑의 이야기를 펼쳐놓을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죄인들의 숙제』는 인생에 대한 희련의 이미지가 '선(線)'에서 '환(環)'의 연속, 즉 단절의 연속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그린다. 삶이 '선'이라면 사랑의 '순간'들은 현실 밖으로 던져지겠지만, 삶이 단절의 연속이라면 사랑은 삶에 수많은 틈을 만들고 그 잔해를 남기게 된다. 이를 통해 사랑을, 비록 순간에 그칠지라도 삶의 연속체를 찢고 몸을 탈취하여 삶을 다르게 구축할 잔해들을 남기는 가장 강력한 "원초적 현재"[11]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녹지대』는 두 세대의 사랑 이야기를 중첩함으로써 사랑의 이야기를 시간적으로 확장한다. 이는 『토지』에 이르러 3세대에 걸쳐 상속되는 사랑의 이야기로 발전된다. 여기서 사랑은 세대를 이어 죄의 역사와 결투한다. 비록 죄의 지배와 그 상속을 끊어낼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진 것은 아닐지라도, 죄 역시 사랑의 상속을 끊어내지 못한다.

4.2 사랑이 구축한 윤리

4장 2절에서는 『토지』[12]의 주인공 최서희가 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결

11 슈미츠, 앞의 책, 83-86쪽.

12 박경리, 『토지』 (총 5부 20권), 마로니에북스, 2012. 본 논문에서 인용 시 (토지 권수, 면

의 사랑을 경험하며 변화해 나가는 양상을 다룬다. 어머니 별당아씨의 도주로 인한 생이별, 아버지 최치수의 피살, 조준구 내외의 재산 강탈, 돌림병으로 인한 수많은 죽음 등을 겪으며 서희의 성격은 완명한 자기중심성을 근간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서희는 길상과의 사랑을 통해 지독한 자기중심성에서 조금씩 벗어나며, 태산과도 같던 권위 의식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서희는 자신이 친일파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것도 개의치 않으면서 은밀히 독립군을 돕는 윤리적 행위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과거 '편협한 이성' 대신 "포용의 폭이 넓어진" 감정을 사용하는 변화가 나타난다(토지9, 233). 데뷔작 「계산」의 회인을 통해 묘사되었던 '고독한 이성'과 '관계적인 감정'이라는 주제는 이제 서희를 통해 이렇게 만개하는 것이다. 오직 냉철한 이성에 의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던 서희는 이후 윤국을 생각하며 산속의 수많은 청년들을 도울 때에는 오직 감정, 그의 심장으로 윤리적 행위로 나아간다(토지 20, 131).

더욱이 눈길을 끄는 것은 사랑을 통한 서희의 변화가, 누구보다 강한 인물이었던 서희를 점점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토지』에 이르러서도 박경리가 일관되게 그려온 사랑의 요체, 그 이상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토지』에서 박경리의 결벽증적 인물들의 특징을 물려받은 임명희는 이렇게 약화된 서희를 바라보며 "서희의 약화된 모습은 오히려 거대한 산같이 느껴"진다고 생각한다(토지 20, 210). 이를 통해 박경리는 사랑으로 인해 자기의 동일성을 포기하고 자기를 약화시키는 일이 진정 거대한 생명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다른 관계 맺음의 방식은 자기동일성을 내려놓고 대상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을 요구하여, 막연한 타자의 얼굴이 아니라 구체적인 타자의 얼굴을 통해 현실에서의 윤리적 행위를 추동한다. 박경리는 『토지』의 최서희를 통해 죄의 패러다임을 벗어난 윤리적 행위를 그리고 있다. 이것은 단지 엄숙하고 우울하기만 한 주체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기에게서 해방되는 기쁨을 동반하는, 자기를 깨뜨리는 사랑이 낳은 것이다. 사랑의 목적지가 윤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사랑이 지속성 속에서 삶의 여러 방식을 창출하는

수)로 표기.

양상 중 하나를 여실히 드러낸다.

5 결론

본 논문은 박경리의 소설이 객관성과 총체성의 확보를 위해 주관의 세계를 극복해 나갔다는 기왕의 표준적인 설명에서 벗어나 사랑이라는 '원초적 현재'가 그의 소설 세계에서 반복해서 체현되는 양상을 조명하며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시도는 박경리의 소설에서 "몸으로"[13] 사랑의 진실에 접근하고자 했던 인물들을 다루며, 그들을 통해 체현된 사랑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사랑의 문제를 중심에 둘 때, 박경리 소설은 양극단의 두 인물형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계산」의 회인과 같은 결벽증적 인물들은 『토지』의 임명희에까지 이어지는 박경리 소설의 원형적 인물형의 계보를 형성한다. 이들은 사랑의 이상을 희구하면서도 끝내 그 결벽증으로 인해 자기 보전의 테두리를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현실에 대한 강렬한 저항 의식을 보이지만, 그럴수록 현실의 중력과 죄의 지배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준다. 반면 『시장과 전장』의 이가화는 『토지』의 별당아씨와 같이 현실의 중력에서 튀어 나간 듯한, 박경리 소설에서 간혹 돌출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오직 사랑을 위해 자기의 몸, 재물, 이념, 신분 심지어 목숨까지도 모두 내던지며, 사랑의 이상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체현한다. 이들은 박경리의 낭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만큼 박경리의 장기라고 할 만한 인물의 풍부한 내면 서술이 이들에게서는 소거되며, 이들의 목소리는 낭만에 경사되어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비극을 드러내는 데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듯하다.

이러한 구도에서 『토지』에 나타나는 최서희의 생애는 이 두 인물형 간의 경계가 결코 명확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사랑의 체현에 있어 박경리에게 핵심적인 문제는 육화되지 못하는, 몸을 탈취하지 못하는 사랑은 현실 속에 다른 삶의 가능성을 심어둘 수 없다는 데 있다. 사랑은, 비록 순간에 그칠지라도 죄의 지배

13 "어느 만큼 접근할 수 있는가 어느 만큼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가, 문학이나 사상이나 그걸 통해서가 아닌 몸으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토지 13, 451, 오가타 지로의 말)

로 가득한 삶의 연속체에서 몸을 탈취해 새롭게 삶을 구축할 수 있는 유산을 남긴다. 역사적 현실을 객관적으로 조망하려는 노력 가운데서도 마치 영원을 함축한 듯한 열정의 순간을 긍정하며 사랑을 삶의 지속 가운데 펼쳐놓았다는 점에서 박경리라는 작가의 독보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폭력과 죄로 파편화된 삶은 불완전한 사랑의 잔해들에서 새롭게 삶을 구축할 재료들을 건져내는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14]

① 단편·중편 소설

박경리, 「계산」, 《현대문학》 제8호, 1955.8.

_____, 「전도(剪刀)」, 《현대문학》 제27호, 1957.3.

_____, 「불신시대」, 《현대문학》 제32호, 1957.8.

_____, 「벽지」, 《현대문학》 제39호, 1958.3.

_____, 『불신시대』(단편집), 동민문화사, 1963.

_____, 「겨울비」, 『환상의 시기(중편집)』, 지식산업사, 1980. (《여성동아》, 1967)

② 장편·대하 소설

박경리, 『애가』, 마로니에북스, 2013. (《민주신보》, 1958).

_____, 『표류도』, 《현대문학》 제50-59호, 1959.2-11.

_____, 『내 마음은 호수』, 《조선일보》, 1960.4.6.-12.31.

_____, 『가을에 온 여인』, 마로니에북스, 2014. (《한국일보》, 1962.8.~1963.5).

_____, 『그 형제의 연인들』, 마로니에북스, 2013. (《대구일보》, 1962.10.~1963.5).

_____, 『시장과 전장』, 현암사, 1964.

_____, 『녹지대』 (1, 2권), 현대문학, 2012. (《부산일보》, 1964~1965).

_____, 『신교수의 부인』, 《조선일보》, 1965.11.23.-1966.9.13.

14 기본자료의 경우만 석사학위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을 그대로 옮김. 원본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괄호로 연재 지면과 시기를 따로 표기.

_____, 『뱁새족』, 마로니에북스, 2013. (1967.6~9.《중앙일보》).
_____, 『죄인들의 숙제』,《경향신문》, 1969.5.24.-1970.4.30.
_____, 『단층』,《동아일보》, 1974.2.8.-12.30.
_____, 『토지』 (5부 20권), 마로니에북스, 2012. (제1부:《현대문학》 1969~1972); 제2부:《문학사상》 1972~1975; 제3부《주부생활》 1977~1979; 제4부:《마당》 1981~1982,《정경문화》 1983,《월간경향》 1987~1988; 제5부:《문화일보》 1992~1994)
③ 수필
박경리, 『Q씨에게』, 현암사, 1966.
_____, 『기다리는 불안』, 현암사, 1968.
_____, 『Q씨에게』, 지식산업사, 1981.
_____, 「가설(假設)을 위한 망상」,《현대문학》 제620호, 2006.8. 225-242쪽.
_____, 「생명의 아픔(연재): 모순의 수용」,《한국일보》, 1996.3.15.

단행본
서영채, 『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53-58, 80-97쪽.
사라 아메드, 성정혜·이경란 옮김, 『행복의 약속』, 후마니타스, 2021, 48-55쪽.
알랭 바디우, 이종영 옮김, 『조건들』, 새물결, 2006.
_____, (대담: 니콜라 트뤼옹), 조재룡 옮김, 『사랑 예찬』, 도서출판 길, 2023, 16-19쪽.
헤르만 슈미츠, 하선규 옮김, 『사랑의 현상학』, 그린비, 2022, 83-86쪽
Butler, Judith.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New York: Routeledge. 1993.